

“Easy to -” 구문에 관한 연구

임 경 섭

I

아래와 같은 영어 문장은 변형문법 논의에서 줄곧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.

- (1) a. John is easy to please.
b.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.

우리가 (1)과 같은 문장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몇가지 사실을 발견한다. 첫째로 각 문장마다 gap 이 있다는 것, 즉, 보문의 어느 곳엔가 잃어버린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. 아래 (2)의 밑줄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.

- (2) a. John is easy to please _____.
b.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_____.

둘째로는 상위문의 표면주어는 보문의 요소와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. 즉, 상위문의 주어가 밑줄친 gap 의 위치에 있을 때에만 의미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이다. 마지막으로 gap 은 상위문 주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.

그리고 우리는 몇가지의 제약도 발견한다. 첫째로는 (3b)처럼 보문의 gap 은 주어자리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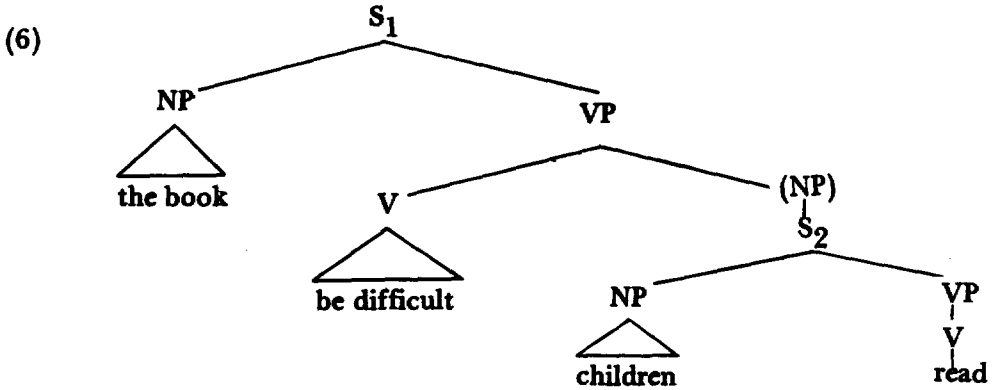
- (3) a. John is easy to please _____.
b. *John is easy _____ to please.

둘째로는 (4b)처럼 변형규칙이 gap 을 포함하는 보문에서는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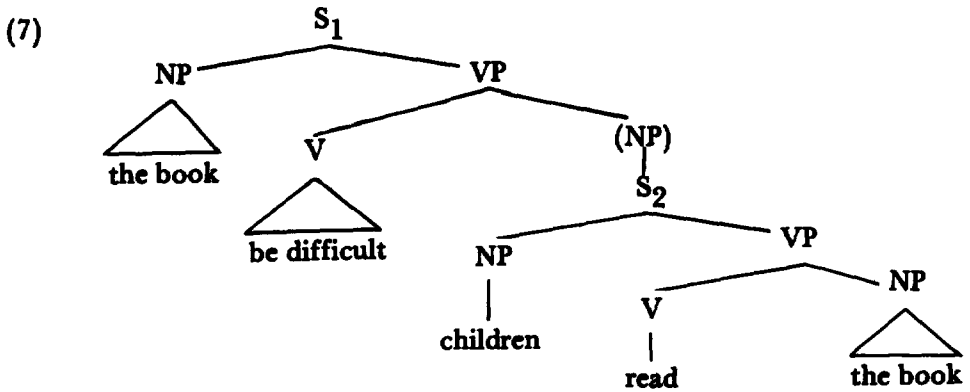
- (4) a.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.
b. *The book is difficult to be read.

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에는 세가지의 다른 가설이 있었다. 첫째로는 구절구조가설 (The Phrase Structure Hypothesis)으로서 (5)의 심층 구조를 (6)으로 본다는 것이다.

- (5) The book is difficult for children to read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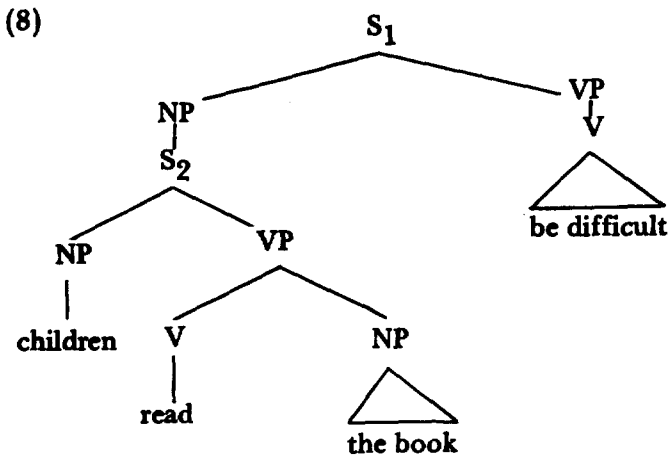


둘째로는 생략가설 (The Deletion Hypothesis)로서 (5)의 심층구조를 (7)처럼 본다.



여기에 Non-subject Deletion 이라는 규칙 - 즉, S₂ 문장안의 동사 오른쪽에 있는 NP가 상위문 주어와 동일할 때 S₂ 문장 안의 동사 오른쪽에 있는 NP를 생략하는 규칙 -이 적용된다.

셋째로는 이동가설 (The Movement Hypothesis)로서 (5)의 심층구조를 (8)처럼 본다.



여기에 Non-subject Raising이라는 규칙 - 즉, S₂ 문장 안의 동사 오른쪽에 있는 NP를 S₁ 문장의 주어로 삼고 S₂ 문장에 있는 나머지 요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규칙 - 이 적용된다.

위의 세가지 가설 중에서 첫번째 가설인 구절구조가설은 gap을 갖는 문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구절구조규칙을 못가지도록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겠다. 왜냐하면 (9)와 같은 문장때문이다.

- (9) a. *John is easy to please Jane.
b. *The book is difficult for children to sleep.

또 의미관계에서 볼 때, 문장의 표면구조 주어는 그것이 gap의 위치에 있을 때에만 의미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. 즉 (1b)의 *the book*이 *read*의 목적어로 이해된다. 그러나 이 구절구조가설은 설명하지 못한다. 또 아래의 (10)에서 보듯이 (10a)가 (10b)처럼 선택제한(selectional restriction)에 의해서 비문이 됨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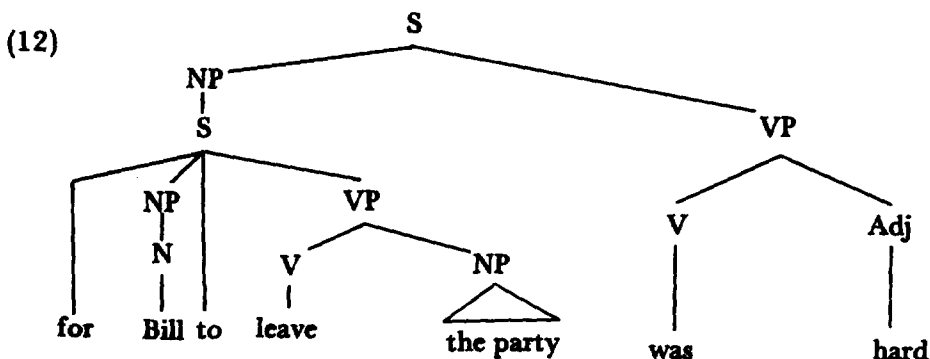
- (10) a. *Those bricks are easy for us to interview.
b. *We interviewed those bricks.

두번째 가설인 생략가설은 흔히 말하는 목적어탈락규칙(Object Deletion)인데, 이 역시 의미관계에서 볼 때 (5)의 *is difficult*의 logical subject는 표면구조에 나타나는, 즉, (7)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*the book*이 아니라 *for children to read the book*이라는 점에서 (7)의 심층구조가 적합치 않다. 마지막으로 이동가설은 흔히 말하는 Tough Movement인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.

II

여기서는 “easy to-” 구문에 대한 Tough Movement의 접근방법을 알아 보기로 한다. Tough Movement는 tough 유형의 형용사들인 *difficult*, *easy*, *hard* 등이 존재하는 문장구조에 적용되는 규칙이다.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, 아래 (11)은 (12)와 같은 심층구조를 갖는 것으로 본다.

- (11) The party was hard for Bill to leave.



이때 *was hard* 의 logical subject 는 표면주어인 *the party* 가 아니라 *for Bill to leave the party* 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. 이 구조에 후치변형규칙 (Extraposition) - 즉, Subject clause 를 문 뒤로 보내면서 그 자리에 dummy *it* 를 놓는 규칙 - 을 적용하여 (13) 을 생성한다.

(13) It was hard for Bill to leave the party.

여기에 Tough Movement 규칙 - 즉, subordinate clause 에 있는 동사 오른쪽의 NP 를 상위문의 주어로 삼고 subordinate clause 에 있는 나머지 요소를 문장의 끝으로 이동시키는 규칙 - 이 적용되어 (11) 이 생성된다.

지금까지의 연구는 GB 이론 이전의 분석이다. 이제부터는 GB 이론에 입각하여 “easy to-” 구문에 적용되는 Tough Movement 를 고찰하여 보자. 먼저 GB 이론에 의한 문법모형을 살펴 보면 (14) 처럼 rule system 과 principle system 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.

(14) a. Rule System

1. lexicon
2. syntax
 - (a) categorial component
 - (b) transformational component
3. PF-component
4. LF-component

b. Principle System

1. bounding theory
2. government theory
3. θ -theory
4. binding theory
5. Case theory
6. control theory

위의 같은 문법모형을 기초로 하여서 아래의 (15) 를 고찰하여 보자.

(15) a. It is easy to please John.

b. John is easy to please.

(15 b) 는 (15 a) 에 Tough Movement 규칙이 적용되어 생성된 문장이다. 그러나 (15) 에서 처럼 (16 a) 에 Tough Movement 규칙을 적용하여 (16 b) 를 생성하면 비문이 생긴다.

(16) a. It is easy to take good care of the orphans.

b. *Good care is easy to take *t* of the orphans.

아래의 (17) 역시 Tough Movement 결과 비문이 생겼다.

- (17) a. *Too much is hard to make *t* of that suggestion.
 b. *There is hard to believe *t* to have been a crime committed.

이는 *idiom chunks* 나 *non-arguments* 를 갖는 문장에 *Tough Movement* 가 적용되면 비문이 생성됨을 보여준 것이다.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.

- (18) a. It is pleasant for the rich [for the poor to do the hard work].
 b. *The hard work is pleasant for the rich [for the poor to do].
 c. The hard work is pleasant for the rich [to do].

(18 b)도 (18 a)에 *Tough Movement* 가 적용된 것이다.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 *Tough Movement* 는 “easy to-” 구문을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. 즉, 비문도 만들고 정문도 만들기 때문이다.

III

여기서는 “easy to-” 구문에 대한 고찰로서 *wh-movement* 에 의한 접근방법을 알아 보기로 한다. Chomsky (1977b) 는 아래의 (19) 와 같은 문장들도 *wh-movement* 의 속성을 나타내는 부류에 속한다고 하였다.¹⁾

- (19) a. John is easy to please.
 b. John is an easy person to please.

즉, (19 a)에서 *embedded phrase, to please* 는 *wh-movement* 와 같은 어떤 것을 겪은 *clause* 의 나머지로 가정하였다. 왜냐하면 (19 b)와 같은 문장에서 *wh-phrase* 가 아래의 (20) 처럼 실제로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.

- (20) a. This is an easy violin on which to play sonatas.
 b. This is a pleasant room in which to work.

그래서 (19 a)와 (19 b)가 관련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, 즉, (19 b)의 *to please* 를 형용사구 *easy to please* 에서 *extrapose* 한다면 형용사 *easy, pleasant* 등이 갖는 보문의 심층구조는 *COMP* 위치가 이동된 요소를 갖는 절로서 *trace* 를 *variable* 로서 남긴다. 다시 말하면 (19 a)에서 *embedded clause* 는 아래 (21 a)의 *base structure* 에 *wh (PRO)-movement* 가 적용되어 (21 b)의 *S-structure* 가 생성된다.

1) P. Culicover, T. Wasow and A. Akmajian, eds. (1977). *Formal Syntax*. pp.104-108. 참조.

- (21) a. John is [_{AP} easy [_S COMP [_S PRO to please PRO]]]
 b. John is [_{AP} easy [_S PRO_i [_S PRO to please t_i]]]

이때 (21 b)에서 내포문 주어 PRO는 binding theory²⁾에 의해서 i와는 다른 index를 갖고 reference에서는 arbitrary 하다. 그리고 내포문의 trace는 그것이 \bar{A} -bound이기 때문에 variable이다. 또 COMP안의 PRO는 John과 coindex된다. 이처럼 (19)를 Tough Movement로 해결하려고 하니 θ -theory에 걸리게 됐다. 즉, 상위문 주어 John이 그의 S-structure 자리에 lexically-inserted되었다. 그러므로 상위문 주어자리는 (21 b)의 variable t_i 자리에서처럼 θ -position이 있어야 한다. 그래서 θ -criterion에 걸리게 된다. 즉, 각 argument는 오직 하나의 θ -role만을, 그리고 각 θ -role은 오직 하나의 argument에만 주어진다는 것을 위반하였다.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(16 b)와 (17)의 문장들이 비문임을 잘 설명한다. 그러나 아래의 (22)의 문장들은 이 동규칙이 적용되었는데도 정문이다.

- (22) a. Good care seems t to have been taken t of the orphans.
 b. Too much seems t to have been made t of that suggestion.
 c. There is believed t to have been a crime committed t.

이상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(19 a)는 상위문 주어자리가 θ -position 이어서 내포절에서 상위문 주어자리로의 movement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. 그러나 easy-category를 갖는 구문은 물론 상위문 주어자리가 θ -position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clausal complement를 갖는다. 즉, 아래의 (23)이다.

- (23) a. It is hard [to like John]
 b. It is pleasant for the rich [for the poor to do the hard work]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dual lexical categorization³⁾ - 즉, 주어자리는 complement가 internal movement를 겪지 않는 경우에만 θ -position이다-을 가정하였다. 그래서 lexical items는 base에서 삽입되나 lexical properties는 LF-level에서 "checked"된다고 가정하였다. 즉, 어휘 John은 base에서 삽입되나 이것의 lexical properties - John이 like의 목적어라는 것, 다시 말해서 John은 like뒤에 나온다는 것 -는 LF-level에서 "checked"된다고 가정한 것이다.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projection principle⁴⁾을 위배한다. 즉, Base에서는 John이 is easy 앞에 놓여 있었는데 LF-level에서는 John이 like 뒤에 있다는 것이 되어서 projection principle을 위배한다. 그리고 θ -criterion⁵⁾도 위배한다. 즉, it도 θ -po-

2) N. Chomsky (1981). p.188. 참조.

3) Ibid, p.187.

4) Ibid, p.29.

5) Ibid, p.36.

sition 에 있고 *John* 도 θ -position 에 있기 때문에 Movement 가 일어날 수 없다. 왜냐하면 어떤 문장요소를 이동시키는 이동변형규칙은 반드시 의미론적 격기능이 없는 자리 (Non- θ -position) 로 문장 요소를 이동해 가야 한다는 Move- α 의 가설때문이다.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투영원리에 “Subcategorization properties of lexical items must be satisfied at LF” 를 받아들여 - 즉, 확대투영원리로서 “LF에서 배당된 의미론적 격기능은 S-structure 와 D-structure 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” 를 받아들이고, θ -criterion 에 “Non-arguments include other non-NP categories as well as NPs that are “non-referential” : impersonal *it*, existential *there* perhaps idiom chunks and analogous in other languages” 를 받아들여서 문두의 *it* 를 impersonal *it* 로 취급하면 non-argument 가 되어 $\bar{\theta}$ -position 이기 때문에 movement 가 일어난다고 보았다. 이때 *John* 은 θ -position 에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러한 dual lexical categorization 에 의한 분석 방법은 의심스럽고, 방금 분석한 projection principle 과 θ -criterion 을 언급하는데 optimality assumptions 과는 거리가 멀다. 즉, 한 category 가 이중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과 θ -position 을 $\bar{\theta}$ -position 으로 본다는 점이 의심스럽다.

여기에 덧붙여 생각해 볼 것이 아래의 (24)이다. 즉 **John is easy to please Mary* 의 구조이다.

(24) **John is easy* [_S PRO [_S *t* to please Mary]
[+WH]

이 구문이 비문임은 아래의 (25)가 비문임을 설명하는 방법과 같다.

(25) **Who is it easy* [*t* to like Bill]

(25)에서의 설명은 θ -role 을 가정해 줄 능력이 없는 non-Case-marked variable 이기 때문에 비문이라고 한다. 즉 (25)에서 variable *t* 는 *like* 로부터 θ -role 은 받지만 Case 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 것이다. 이는 *wh*-trace 는 one-member chain⁶⁾ 을 이루고 있어서 Case 와 θ -role 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(24)가 *wh*-movement 에 의한 이동이라면 (25)가 비문인 것처럼, 즉 *t* 는 θ -role 은 있지만 Case 가 없어서 (24)도 마찬가지로 비문이 된다. 여기에서도 이동된 *John* 을 [+wh] 로 본다는 점이 이상하다. 그래서 이것 역시 *wh*-movement 의 문제점이 된다.

다른 각도에서 볼 때, (19 a) *John is easy to please* 가 *wh*-movement 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에 의하면, movement-to-COMP 는 형용사의 clausal complement 에서 일어나기 때문에, S 가 bounding category 라면 이러한 구조는 subjacency condition⁷⁾ 을 받는 island 인 것이다. 즉, 다시 말해서 *wh*-island 인 것이다. 이는 아래의 (26)과 (27)에서처럼 *wh*-island violation- “No element can be moved out of a clausal containing

6) *Ibid.*, p.333.

7) A. Radford (1981), p.249.

an overt *wh*-complementizer or *wh*-phrase in COMP”-에 의해 설명되는 것과 비슷한 (28)이 있다는 것이다.

- (26) a. **Who*_i did you ask [*what*_j John had given *t*_j to *t*_i]
 b. You asked [*what*_j John had given *t*_j to him]
- (27) a. **What*_i did you ask [*who*_j John had given *t*_j to *t*_i]
 b. *You asked [*who*_j John had given the books to *t*_j]
- (28) a. *Which sonatas are the violins easy [to play *t* on]
 b. The violins are easy [to play the sonatas on]
 c. *Which people are the books easy [to convince *t* [to read]]
 d. The books are easy [to convince people [to read]]

구체적으로 말하면 (26 a)와 (27 a)는 각각 (26 b)와 (27 b)에 *wh*-movement가 적용된 것인데 *wh*-island violation에 의해서 비문임이 설명되듯이, (28 a)와 (28 c)도 *wh*-island violation에 의해서 비문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. 그러나 문제점이 생긴다. 만약에 (28 a)와 (28 c)가 *wh*-island violation에 의해서 비문이 된 것이라면 아래의 (29)는 똑같이 *wh*-island violation을 하였는데도 비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?

- (29) Which violins are the sonatas [easy to play on *t*].

이때 complex adjective construction으로부터 “internal phrases”를 추출하여 이동하는 것이 “peripheral phrases”를 추출하여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violation처럼 보인다. 그러나 이러한 “peripheral” *wh*-movement도 (29)보다 훨씬 less acceptable한 (30)과 심지어는 완전히 ungrammatical한 (31)도 있다.

- (30) a. Which table is the book easy [to put on *t*].
 b. Which garage is the car easy [to keep in *t*].
- (31) a. *How intelligent is John possible [to consider (to be) *t*].
 b. *How intelligent is John possible [to think of (regard) as *t*].

좀더 나아가 (31)을 (32)와 비교해 보자.

- (32) a. How intelligent is it possible to consider John (to be)
 b. How intelligent is it possible to think of (regard) John as

위의 비교 결과는 complex adjective-complement 구문은 (32)에 unacceptability의 정도를 정해주는 장벽 그 이상으로 *wh*-extraction에 대해선 훨씬 더 높은 장벽을 올리는 것 같다. 또 (29)와 (30)을 통해서 “peripheral” clause의 *wh*-movement는 어느 의

미에서 *phrase* 가 동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도에 따라서 훨씬 더 unacceptable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요약하면 “peripheral” *wh*-extraction 은 그와 관련된 *wh*-island violation보다 훨씬 더 acceptable 한 반면에, “internal” *wh*-extraction 은 less acceptable 한 것 같다. 이처럼 *wh*-movement 에 의한 접근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.

결론적으로, “easy to-” 구문은 *wh*-movement, 즉 PRO-movement 로 해결할 때에도 문제점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. 첫째로 상위문의 주어자리는 그것이 D-structure 에서 $\bar{\theta}$ -position 이기 때문에 null 이어야 되는데, (19 a) *John is easy to please* 처럼 *John* 이 나타났는데도 정문이라는 점과 둘째로는 구조 (24)에서 trace 를 *wh*-trace 로 보기 어렵다는 점, 즉 θ -role 은 있으나 Case 가 없어서 one-member chain 을 이루지 못한다. 그러면 무슨 trace 로 보아야 할까 의문이다. 세계로 (28 a)는 비문인데 (29)는 정문임을 *wh*-movement 에선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. 다음 장에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자.

IV

앞에서 언급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, Reanalysis 와 base-generated *t* 를 받아들여 “easy to-” 구문을 해결해 보도록 한다. 먼저 Reanalysis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.

- (33) a. They took advantage of John.
 b. Advantage was taken of John.
 c. John was taken advantage of.

우리는 (33a)에서 2개의 수동문이 나옴을 알 수 있다. 이는 VP *take advantage of someone* 의 구조를 (34)처럼 볼 때에는 (33b)의 수동문이, *advantage* 를 동사 *take* 의 목적어로 받아들여 수동화시켜 생성된 것이 나온다.

- (34) [_v take] [_{NP} advantage] [_{pp} of [_{NP} someone]]

그러나 (33c)를 해결하기 위해선 *take advantage of someone* 의 구조를 (35)처럼 잡아야겠다.

- (35) [_v take advantage of] [_{NP} someone]

이때 V *take advantage of* 를 하나의 동사로 보아서 목적어 *someone* 을 수동화시켜 (33c)가 생성된 것이다. 이렇게 할 경우에 (33)이 잘 설명된다. 이때 (34)를 (35)로 바꾸어 주는 것이 Reanalysis 이다. 즉 category 를 재분석하는 것이다.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(33b)는 아래의 (36)에 NP-Movement 가 일어난 것이다.

(36) [e] [_{VP} was taken] [_{NP} advantage] [_{pp} of John]

즉, NP *advantage*가 [e] category로 이동한 것이다. 또 (33c)는 아래 (37)에 NP-Movement가 일어난 것이다.

(37) [e] [_{VP} was taken advantage of] [_{NP} John]

이때 *John*이 [e] category로 이동한 것이다. 그러나 이러한 *Reanalysis*도 *lexically-governed*되기 때문에 *Reanalysis*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. 즉, 어휘에 따라서 지배된다. 또 이러한 *Reanalysis*는 어휘삽입이 끝난 뒤에 적용되는 것이며, *Move-α*가 적용되기 이전에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특성이 있다. 이제부터 *Reanalysis*에 의해서 “easy to-”구문을 해결하여 보자.

먼저 *Tough Movement* 의해 야기되었던 문제부터 점검하자 즉 (16b)가 비문인 이유는 가볍게 설명이 된다. 먼저 “easy to-”구문을 *Reanalysis*를 하면 (16b)의 심층구조는 (38)이 된다.

(38) [e] is [_{AP} [_A easy to take good care of]] [_{NP} the orphans]

이때 *good care*가 *Move-α*되어서 (16b)가 되는데 비문이 생긴 이유는 *Reanalysis*를 하여 *easy to take good care of*가 하나의 *lexical category*가 되기 때문에 그 속의 한 요소를 이동시킬 수가 없다.

여기에 *base-generated t*를 받아들이면 *wh-movement*에서 생긴 첫번째 문제점이 잘 설명된다. 먼저 *base-generated t*에 관해서 조금 언급하면, 아래의 (40)의 심층구조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.⁸⁾

(39) John was killed

하나의 심층구조는 *Move-α*를 인정하여 아래 (40)과 같다.

(40) [e] was killed John

이때 *John*이 [e] category로 이동한 것으로 본다. 반면에 *Move-α*를 인정하지 않고 *Base*에서부터 생성된 것으로 볼 때면 (41)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.

(41) John was killed NP

이때 *NP*는 무엇인가가 이동해 가버린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느껴서 *trace*를 주었을 때 이 *t*가 *base-generated t*가 된다. 이 *base-generated t*를 받아들이면 *D-structure*는 아래의 (42)와 같다.

8) Chomsky, N. (1981). p.187.

(42) [e] is easy [_S PRO to please. t].

이렇게 볼 때, (19a) *John is easy to please* 는 (21a)에서 (21b)를 거쳐 나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**Reanalysis** 와 **base-generated t**에 의해서 아래의 (43)에서 생성된 것이다.

(43) John is [_{AP} [_A easy to please] t_i]

이때 t_i 는 \bar{A} -bound가 아니기 때문에 **variable**이 아니다.⁹⁾ 즉 (42)에서의 t 는 θ -role도 받고 **Case**도 받아서 **variable**로서 받아 들여지는데, **Reanalysis**가 된 뒤의 (43)에서의 t_i 는 **variable**이 아니라, 차라리 **anaphor**이다.¹⁰⁾ 그래서 역시 **Case**가 없다. 만약에 t_i 가 **free indexing convention**에 의해서 *John* 과 **coindex**된 다면 문장은 **grammatical**하다. 이래서 (21b)에서 **COMP**자리에 있는 **PRO**와 *John*을 관계지어주는 **control** 규칙이 필요없게 된다. 그 반면에 *John* 과 t_i 를 연결지어주는 **antecedent-anaphor**관계만 있다.

이렇게 **Reanalysis**와 **base-generated t**를 받아들인다면, 먼저 **wh-movement**에서 해결하던 중에 가정하였던 **dual lexical categorization**도 쉽게 해결된다. (43)에서 trace 는 θ -position에 있기 때문에 보통 때처럼 trace 가 θ -role 을 **antecedent**에 **transmit**한다고 가정하자. 그러면 **dual lexical categorization**에서 가정하였던 상위문 주어 가 θ -position에 있다는 가정이 더이상 필요없게 된다. 결국 **dual lexical representation**도 필요 없게 된다. 그래서 원래대로 **easy category**를 갖는 구문은 그것이 **clausal complement**를 취할 때, 상위문 주어에 θ -role을 **assign**할 수 없게 된다. 즉, 상위문의 주어는 **movement**의 경우에서처럼 그것의 **coindexed trace**의 θ -role을 **assume**한다. 이것은 마치 **NP - Movement**에서 trace 가 θ -role을 **transmit**하는 것과 비슷하다.

이렇게 볼 경우 **wh-movement**에서 생긴 첫번째 문제점은 **Tough Movement**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듯이 잘 설명된다. 그러나 새로운 θ -theory의 문제점이 생긴다. 만약에 상위문 주어 가 **D-structure**에서 **lexically-inserted**된다면 우리가 방금까지 가정해왔던 것과는 반대로, **projection principle**이 상위문 주어자리는 θ -position이어야 함을 요구하게 된다. 이렇게 보면 상위문 주어는 **D-structure**에서 **insert**된 것도 아니고 상위문 주어 자리로 이동된 것도 아니다. 이러한 **paradox**에서의 유일한 탈출구는 『**lexical insertion**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**S-structure**에서 이루어 진다』고 가정하여야 한다. 그러나 투영원리는 **lexical insertion**이 **D-structure**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θ -position은 **D-structure**에서 **argument**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. 그래서 우리는 **lexical insertion**은 **D-structure**나 **S-structure** 어디에서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면 결론으로 나아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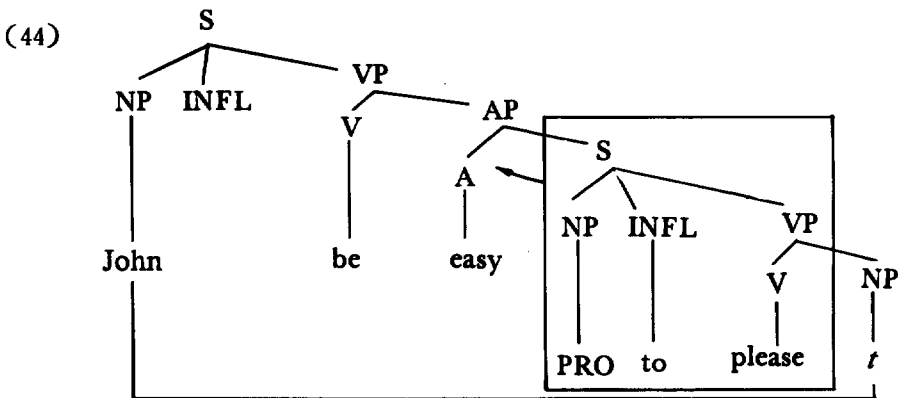
9) *Ibid.*, p.330.

10) *Ibid.*, p.330.

게 된다. 이때 투영원리가 어떤 선택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.¹¹⁾ 그러나 **lexical insertion**이 **S-structure**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가능성은, **trace**가 투영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자리에 **base-generated**된 **argument**의 이동의 결과로 생겨나고, θ -role이 **trace**로부터 **inherited**될 수 있도록 **Reanalysis**에 의해 적절한 **function chain**¹²⁾이 주어진 **non- θ -position**에서만 있다. 간단히 말해서 **lexical insertion**이 **D-structure**나 **S-structure**에서 자유롭게 적용된다면 **Complex Adjectival Constructions**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.

다시 **wh-movement** 문제점으로 돌아와서 **Reanalysis**와 **base-generated t**를 이용한 접근방법을 보면 (19a) *John is easy to please*의 **D-structure**는 (42)이고 여기에 **Reanalysis**를 적용하면 (43)이 됨을 알 수 있다. (43)에서 **compound adjective** 뒤에 나오는 **t**는 θ -role은 있으나 **Case**가 없다. 그러나 *John*은 θ -role은 없으나 **Case**는 있다. 즉 *easy to please*와 (NP)*t* 사이에는 **govern**하고 θ -mark를 주지만 **Case-mark**는 주지 못한다. 이는 **trace**가 꼭 **np-t**처럼 보인다. 즉, **np-t**처럼 **A-chain**을 이룬다. 즉, **antecedent**는 **Case**를 받고 **trace**는 θ -role을 받는 하나의 연쇄를 이룬다. 이때 **t**는 **S-structure**에서 삽입된 *John*과 **coreferent**할 수 있다. 그래서 **wh-movement**에서 야기된 첫번째 문제점은 해결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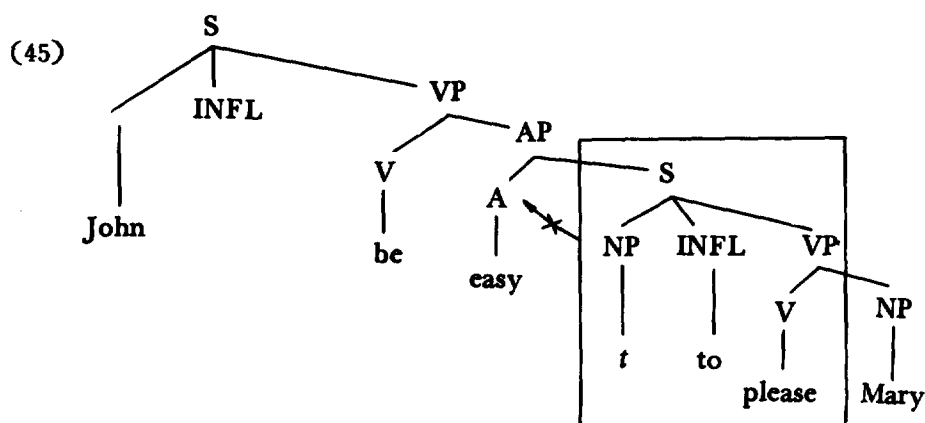
wh-movement에서 생긴 두번째 문제점을 **Reanalysis**와 **base-generated t**에 의한 접근방법으로 설명하여 보자. 이 문제점은 주어자리에서 **movement**가 일어날 경우의 비문법성에 대한 설명력이다. 먼저 (43) *John is easy to please t*를 **trace**로 그리면 아래의 (44)와 같다.



여기에 **Reanalysis**가 적용되어 사각형 친 부분이 **A-node**에 연결된 뒤에는 **NP**가 이동하는 것이 괜찮다.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(24) * *John is easy t to please Mary*의 **trace**는 아래의 (45)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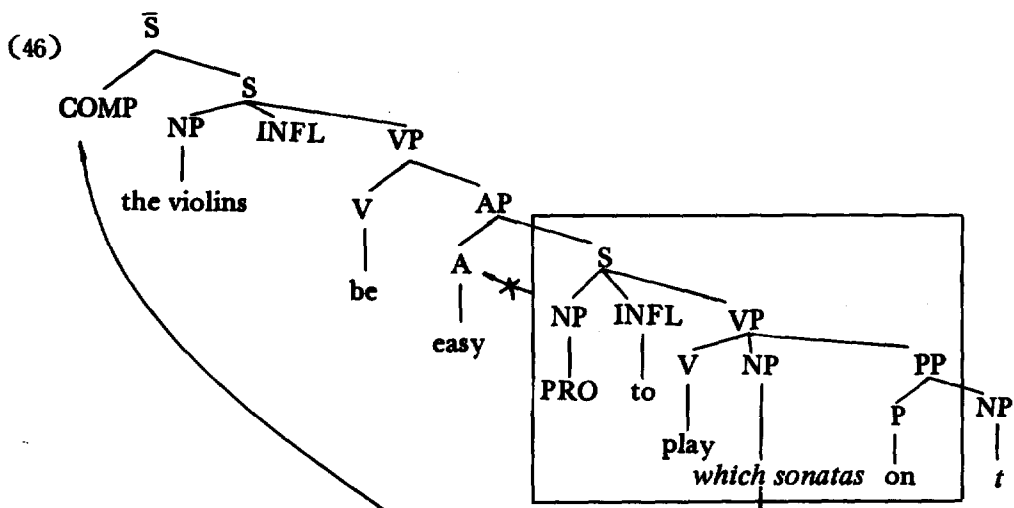
11) *Ibid.*, p.187.

12) *Ibid.*, pp.333-33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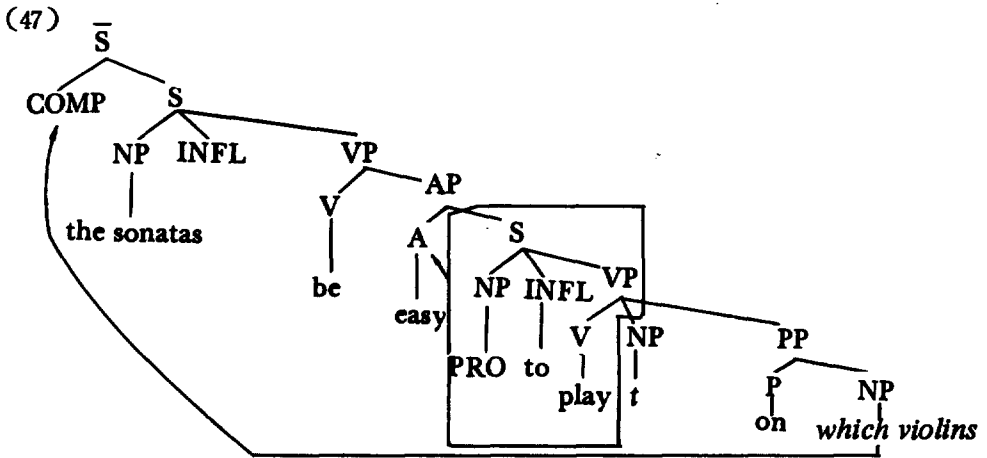


여기서는 (18b) **the hard work is pleasant for the rich [for the poor to do]* 가 Reanalysis가 될 수 없는 것처럼 - 즉, Reanalysis는 embedded infinitive와 상위문의 형용사 *easy (for NP)* 와의 adjacency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embedded subject의 존재 때문에 Reanalysis가 될 수 없는 것처럼, (45)에서 사각형 친 부분이 *easy*에 연결될 수 없다. 즉, 인접의 이론 (Adjacency)-핵요소가 그의 비핵요소에게 격을 배당할 때에는 서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-에 위배된다. 다시 말하면 *easy*와 *to please* 사이에 trace가 있기 때문에 Adjacency를 위해하여 Reanalysis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. 더구나 Reanalysis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trace는 θ -role을 받지 못한다. 왜냐하면 *easy t to please*가 형용사 category가 되어서 그 lexical category 속의 trace에게는 θ -role이 없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이러한 Reanalysis는 violation of θ -criterion을 야기 시킨다. 즉 *t*가 θ -role이 없다는 것이다. 그래서 비문이 생긴다.

마지막으로 세번째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자. 즉, (28a) **Which sonatas are the violins easy [to play t on]* 은 비문인데 (29) *Which violins are the sonatas [easy to play on t]* 는 정문인 것에 대한 설명방법이다. 이때 (28a)는 Reanalysis에 의해 형성된 category 즉, lexical category에서의 extraction이어서 unacceptable한 것이다. 즉(28a)의 심층구조를 아래의 (46)으로 본다.



이때 Reanalysis가 되어 사각형 친 부분이 *easy*와 연결되면 *easy to play which sonatas on* 이 AP가 되어 *which sonatas*에 Case가 없게 된다. 그런데 모든 NP는 Case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Case Filter에 위배된다. 또 *which sonatas*가 COMP자리로 이동할 때에는 AP속의 한 요소이어서 θ -role도 없고 Case도 없어서 비문이 생성될 뿐 아니라 *which sonatas*가 이동하여도 이때의 trace 역시 θ -role도 없고 Case도 없기 때문에 비문임이 잘 설명된다. 그 반면에 (29)는 “peripheral elements”에서의 *wh*-extraction으로서 그 심층구조는 아래의 (47)과 같다.



이때의 trace는 θ -role은 있지만 Case가 없다. 그러나 *the sonatas*는 θ -role은 없지만 Case는 있다. 즉 이 trace는 *np-t*로서 보면 *t*가 θ -role을 transmit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. 또한 *which violins*는 전치사로부터 Case를 받고 θ -role도 있다. 그래서 θ -criterion에도 위배되지 않는다. 또 COMP자리로 옮겨갈 때에도 *wh*-movement가 지켜야 할 Subjacency - 즉, Move- α 는 하나 이상의 bounding node, 예를 들어보면 NP, S-bar 등을 넘어갈 수 없다 - 의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. 고로 grammatical sentence가 생성된다.

V

이상에서 알아 보았듯이 “easy to-” 구문에 대한 접근방법이 많았다. 즉 Tough Movement에 의한 접근방법과 *wh*-Movement에 의한 접근방법이 있었다. 그러나, “easy to-” 구문을 설명하는데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.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Reanalysis와 base-generated *t*에 의한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.

BIBLIOGRAPHY

- Akmajian, A. & F. Heny. 1975. *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*. Cambridge: M.I.T. Press.
- Chomsky, N. 1977b. "On Wh-movement." *Formal Syntax*. Culicover, Wasow and Akmajian (eds.). Academic Press.
- Chomsky, N. 1981. *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*. FORIS Publications.
- Chomsky, N. 1982. *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*. The M.I.T. Press.
- Radford, A. 1981. *Transformational Syntax*. Cambridge University Press.
- Rosenbaum, P. 1967. *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*. The M.I.T. Press.
- Smith, N & D. Wilson. 1979. *Modern Linguistics: The Results of Chomsky's Revolution*. Penguin Books.
- Soams, S & David N. Perlmutter. 1979. *Syntactic Argu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English*.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.
- 박 병수. 1979. "영어형용사 보문구조에 대하여." 「언어연구」 1:1. pp. 1-9. 경희언어교육연구소.
- 양 동휘. 1983. "수정확대표준이론." 「현대언어학연구」, pp. 121 - 166.

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
영어영문학과 감사